

K-역사 콘텐츠: 600년 만의 역주행

– 스크린의 흥행이 능역(陵域)을 깨우는 공감의 서사 –

K-History Contents: A Reverse-Run 600 Years in the Making : How Box-Office Success Awakens the Royal Tombs and Forges Shared Empathy

오준호*

2026년 봄, 강원도 영월의 한적한 강 선착장에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과거 인적이 드물던 산골 유배지 앞에 관광객의 긴 행렬이 늘어선 것이다. 이 전례 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한 편의 영화가 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개봉 이후 관객들의 자발적인 구전을 바탕으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종 누적 관객 수 약 1,680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남긴 주목할 만한 가치는 극장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영화의 실제 역사적 무대인 영월 청령포와 단종의 묘소인 장릉(莊陵)을 찾은 관광객은 개봉 전인 1월 9,000명 수준에서 3월에는 보름여 만에 7만 명으로 폭증하였다. 이는 스크린 위의 정서적 감동이 시각적 관람을 넘어, 역사적 공간이자 인문학적 성소인 능역(陵域)으로 향하는 집단적 순례의 실천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징후이다.

왜 600여 년 전, 열일곱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어린 왕의 서사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집단적 순례를 추동하는가?

대중문화사에서 상업적 흥행작은 무수히 존재했으나, 관객을 극장 의자에서 일으켜 세워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 철도 문화와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jh6407@naver.com



〈사진1〉〈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수백 년의 세월이 축적된 유적지의 강을 건너게 만든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 글은 이 현상을 일회성 흥행 특수나 지자체의 일시적인 관광 마케팅 효과로 환원하기보다, 대중 콘텐츠가 잊혀가던 역사를 감정의 층위에서 복원하고 이를 다시 물리적·신체적 체험으로 확장하는 문화적 회로의 역동적인 작동 기제로 읽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외 독자들을 위해 작품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사실을 압축하여 제시한다. 단종(端宗, 1441~1457)은 조선 왕조의 여섯 번째 국왕으로,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나 숙

부인 세조(世祖, 1417~1468)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1457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영면하였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준엄한 절벽으로 가로막힌, 사실상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고립된 유배 공간이며, 장릉은 그의 유해가 모셔진 능침이다. 아울러 사육신(死六臣)은 단종의 복위(復位)를 도모하다 처형당한 여섯 명의 신하들로,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 속에서 대를 이어 ‘절개(節介)’와 ‘충(忠)’의 절대적 표상으로 각인되어왔다. 영화는 바로 이 역사적 비극의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으며, 그 정서적 울림이 스크린의 흥행과 지역 공간의 재발견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견인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화가 변주해 낸 역사적 서사와 대중이 반응한 정서의 핵심 기제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이어 이러한 영화적 흥행이 실제 유적지 방문이라는 공간적 소비로 전이되는 양상을 영화 유발 관광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나아가 단종이라는 단일 인물을 넘어 사육신과 충신,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 ‘빌런’으로 재해석된 인물들까지 전국적인 문화적 담론의 장으로 소환되는 현상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세대 간 공감과 문화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비극이 흥행이 된 이유

- <왕과 사는 남자>는 무엇을 건드렸는가?

<왕과 사는 남자>의 서사는 역사적 사실의 빈틈을 상상력으로 메우는 데서 출발한다. 영화는 1457년의 청령포를 배경으로, 쇠락해가는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자처한 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그곳에 유배된 어린 선왕(先王)의 이야기를 그린다. 역사가 기록한 것은 단종이 청령포에서 보낸 짧고 고독한 유배의 시간뿐이지만, 영화는 그 침묵의 공간에 한 평범한 인물을 들여보냄으로써 정서적 가정을 세운다. 신분의 거리가 먼 두 사람이 고립된 유배지에서 나누는 교감은 비극의 무게를 덜어내는 동시에 그 본질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설득력을 얻은 까닭은, 그 허구가 향한 곳이 다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단종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건드린 정서의 핵은 세 겹으로 포개진다. 첫째는 연민(憐憫)이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열일곱 소년 왕의 운명은, 역사적 지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보는 이의 보편적 측은지심을 자극한다. 둘째는 절개(節介)와 충(忠)이다. 단종을 둘러싼 인물들이 보여주는 변치 않는 의리는, 효율과 계산이 지배하는 동시대의 감각에 오히려 낯설고 강렬한 울림을 준다. 셋째는 이 둘이 결합하여 빚어내는 비극적 숭고함이다. 끝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곁을 지키는 마음은, 결말의 슬픔을 알고 보아도 마음을 움직이는 고전 비극 특유의 정서로 작동한다. 요컨대 영화는 600년 전의 특수한 정치사를, 시대와 무관하게 통용되는 인간 보편의 감정으로 번역해낸 것이다.

흥행의 양상 또한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왕과 사는 남자>는 통상적인 흥행작이 개봉 1~2주 차에 관객을 집중적으로 모은 뒤 급격히 줄어드는 곡선과 달리, 1주 차부터 4주 차까지 오히려 주간 관객 수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설 연휴에 모인 관객이 다시 입소문을 만들고, 그 입소문이 3.1절 연휴에 더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는 긍정적 선순환이 작동한 것이다. 이 현상은, 작품의 동력이 화려한 개봉 마케팅이 아니라 관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감정의 전염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노년층부터 아동층까지 전 연령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영화가 특정 세대의 취향이 아니라 세대를 가로지르는 정서를 건드렸음을 방증한다.

여기서 N차 관람, 즉 같은 관객이 영화를 반복해 찾는 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줄거리와 결말을 이미 아는 관객이 극장을 다시 찾는 행위는, 정보의 소비가 아니라 정서의 재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 번 보고 마는 오락물이 아니라, 되새기고 싶은 감정의 그릇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되새기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다음 장에서 살필 또 하나의 행동, 극장을 나서 실제 유배지의 강을 건너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출발점이 된다.

2. 스크린에서 능역(陵域)으로 - 영화 유발 관광과 그곳의 힘

영화가 끝난 자리에서 관광이 시작되는 현상은, 관광학에서 ‘영화 유발 관광’ 혹은 ‘스크린 투어리즘’으로 불린다. 영상물이 비춘 장소를 관객이 직접 찾아 나서는 이 행위는, 위에서 짚은 되새기고 싶은 마음이 신체적 이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관객은 스크린에서 느낀 정서를 실제 공간에 발을 디딤으로써 한 번 더,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한다. 작품의 경우 그 욕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단종이 실제로 유배되었던 청령포와 그가 잠든 장릉이었다.

이 사례를 다른 스크린 투어리즘과 구별 짓는 결정적 요소는 비극이라는 정서의 결이다. 관광객이 청령포를 찾는 까닭은 화려한 촬영지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어린 왕이 고립과 죽음을 맞은 슬픔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죽음·재난·비극의 장소를 찾아 추모하고 성찰하는 여행을 관광학은 ‘다크 투어리즘’이라 일컫는다. <왕과 사는 남자>가 일으킨 청령포·장릉 방문은 스크린 투어리즘과 다크 투어리즘이 겹쳐지는 지점에 놓이며, 바로 이 중첩이 정서적 무게를 부여한다.

또한, 관광객이 선착장에서 줄을 서서 배를 기다리고, 강을 건너 비로소 유배지에 발을 디디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단종이 겪은 고립을 신체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접근의 불편함이 오히려 몰입의 장치가 되는 역설이다. 세트장에서 재현된 공간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 곧 진정성이야말로 이 방문이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각인되는 핵심 동력이다.

영월군은 이 흐름을 일회성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관광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종 유배길 같은 볼거리, 젊은 층을 겨냥한 유튜브·블로그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유배지 인근 봉래산에는 보도교와 전망대,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의 여행 경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매년 4월 열리는 단종문화제와 영화를 연계해 극장에서 축제를 홍보하는 광고를 상영하기도 했다. 스크린이 깨운 정서가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환류(還流)되는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2〉 영월 청령포 입장 행렬

(출처: 「‘왕사남 성지순례’ 갈 곳 많네...영월 청령포 말고 또 어디지?」, 〈한겨레〉, 2026년 3월 26일자.
(<https://www.hani.co.kr>)

3. 충신(忠臣)과 역신(逆臣), 전국으로 번진 소환 작업 - 엄흥도와 사육신부터 한명회까지

흥미로운 것은 이 열풍이 단종 한 사람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화가 비춘 비극은 그를 둘러싼 인물 군상 전체로 번졌고, 그 결과 단종 서사에 얽힌 여러 역사 인물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호명되기 시작했다. 한 편의 영화가 한 시대의 인물 전체를 깨운 셈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충신 엄흥도(嚴興道, 1404~1474)다. 그는 사육신처럼 복위를 도모한 신하가 아니라, 영월의 한 향리(鄉吏)에 불과했다. 그러나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시신을 거두는 일조차 역모로 몰리던 서슬 퍼런 정국에서, 엄흥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홀로 단종의 주검을 수습해 영월 동을지산(東乙旨山)에 몰래 장사 지냈다. 바로 그 무덤이 훗날 장릉(莊陵)이 되었으니, 관광객의 행렬이 향하는 그 능은 엄흥도의 목숨을 건 의로움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3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엄흥도 관련 전시를 진행했다. 대구시 군위군에서는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의 묘소를 둘러보는 시티투어와 ‘2026 충의공 엄흥도 특별 시화전’을 열었다. 도리(道理)를 지킨 한 의인(義人)의 서사가 오늘의 관객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행위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禮)였다는 점에서, 엄흥도의 충(忠)은 사육신의 비장한 절개와는 또 다른 결의 감동을 전한다.

	주제	청구기호	서명	발행년	책수	주요내용
1	단종	한古朝54-8	단종실록, 세조실록	1933	3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태백산사고본을 대상으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인 출판. 단종 유배 기사 전시 및 번역
2		古3637-2	단종애사	[1930년대]	7	이광수의 역사 장편소설로, 단종의 일대기를 네 편으로 구분.
3		813.61-16-5	단종애사	1935	1	단종의 죽음 부분 필사본과 인쇄본 비교 전시
4	임흥도	기탁자료	완문	1733	1	병조에서 발급한 문서. 국가에서 임흥도의 충의를 인정하여 후손들에게 군역과 부역을 면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임흥도 관련 내용 전시 및 번역
5		일산古2511-49-2	증참판엄공실기	1817	1	임흥도 관련 기록을 모은 전기. 국가 주도로 인쇄하여 반포.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내용 전시 및 번역
6		古2511-49-1	충의공실기	1936	1	임흥도 관련 기록을 모은 전기. 문중에서 인쇄하여 반포. 단종과 만나는 내용 전시 및 번역

〈사진3〉 〈고문헌으로 보는 단종과 임흥도〉 전시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임흥도의 조용한 의로움 곁에는, 절개의 표상으로 오래 기억되어 온 사육신의 비장한 서사가 나란히 소환되었다. 충남 홍성군은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을 테마로 한 축제를 준비해 그가 참여한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연결함으로써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겨냥했다. 대전시는 사육신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탄생지를 활용한 역사관광 프로그램을 대전스토리투어에 반영했고, 경북 영주시는 복위 운동을 펼친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1457)의 역사를 ‘단종애사 대군 길’이라는 7km의 도보 코스로 엮어냈다. 영화가 환기한 절개와 충의 정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관련 유적을 하나의 서사적 그물망으로 다시 꿰어낸 것이다.

이 현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빌런’의 소환이다. 충남 천안시는 영화 속에서 단종과 대치하는 인물, 곧 역신 한명회의 묘역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선한 주인공뿐 아니라 그에 맞서는 악역의 흔적까지 관광 콘텐츠로 호출된다는 사실은, 대중의 관심이 서사 전체의 입체적 긴장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극이 비극으로 성립하려면 그것을 빚어낸 적대자가 필요하며, 관객은 그 적대자의 자취마저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선과 악이 동시에 호명되는 이 구도야말로, 단편적 향수를 넘어선 서사적 완결성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드러낸다.



〈사진4〉 한명회 묘역

(출처: 충청남도 누리집 문화·역사, <https://www.chungnam.go.kr>)

4. 600년의 시차를 건너는 K-History Contents

지금까지 살핀 흥행과 관광, 그리고 전국적 인물 소환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인다. 어떻게 15세기의 사건이 21세기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 답의 핵심은 ‘시차를 건너는 공감’에 있다. 단종의 비극과 사육신의 절개는 분명 600년 전의 특수한 정치사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억울하게 스러진 어린 생명에 대한 연민, 변치 않는 의리에 대한 경외, 그것을 지키려다 좌절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시대를 초월해 통용되는 인간 보편의 정서다.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그 보편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수백 년의 간극을 정서의 다리로 메워냈다.

이 지점에서 K-History Contents는 앞선 레트로 시대극의 문법을 계승하는 동시에 갱신한다. 1970~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레트로 드라마가 시대와 세대가 달라도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입증했다면, 〈왕과 사는 남자〉는 그 공감을 부모 세대의 기억으로도 닿을 수 없는 수백 년 단위로 되감는다. 레트로 드라마의 공감이 체험된 과거의 복원에 기댄다면, K-History Contents의 공감은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기록된 과거를 감정의 차원에서 새롭게 살아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러한 작동은 잊혀가던 역사를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살아 있는 기억으로 되돌려 놓는다. 성삼문·박팽년의 이름이 교과서의 한 줄에서 걸어 나와 축제와 도보길의 주인공이 되고, 이름조차 낯설던 향리 엄홍도의 의로움이 한 시대의 양심으로 재조명되며, 단종이 잠든 능역에 늘어선 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적 추모 의례가 된다. 이때 관객은 그 시대를 감각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자각하게 된다.

물론 과제도 분명하다. 영화의 열기가 식으면 관광객의 발길 또한 줄어드는, 이른바 일회성 특수(特需)의 한계는 모든 영화 유발 관광이 마주하는 숙제다. 영월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전망대·도보길·축제와 같은 항구적 인프라로 열기를 전환하려 애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관건은 영화가 불러일으킨 일시적 감정을, 그 장소에 깃든 역사적 서사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현대사를 넘어 전근대의 역사까지 대중적 공감의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이 흐름은, 앞으로 K-콘텐츠가 시간의 깊이를 더해가며 펼쳐 보일 또 다른 가능성을 예고한다.

[References]

- 임동욱·이규철, 「‘단종 유배길’로 살펴본 문화유산의 다크 콘텐츠화와 공공역사의 개입」, 『사림』 96, 수선사학회, 2026.
- 정혜윤, 「극장 위기 시대 한국 영화 흥행 요인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유튜브 관객 담론의 혼합방법론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6(4), 한국콘텐츠학회, 2026.
- 정민아, 「21세기 한국 현대사 영화의 흥행성과 대중 감성 코드 연구」, 『씨네포럼』 48, 동국대 영상미디어센터, 2024.
-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군위군청(<https://gunwi.go.kr/>)
- 대전광역시(<https://www.daejeon.go.kr/>)
- 영월군청(<https://www.yw.go.kr/>)
- 천안시청(<https://www.cheonan.go.kr/>)
- 홍성군청(<https://www.hongseong.go.kr/>)
- 「최영·성삼문 충절 정신 기리다」, 〈충청투데이〉, 2026년 5월 28일자. (<https://www.cctoday.co.kr/>)
- 「왕과 사는 남자 관객수 1628만 돌파…극한직업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2위」, 〈기독일보〉, 2026년 4월 15일자. (<https://www.christiandaily.co.kr/>)
- 「‘왕사남 성지순례’ 갈 곳 많네…영월 청령포 말고 또 어디지?」, 〈한겨레〉, 2026년 3월 26일자. (<https://www.hani.co.kr/>)
- 「‘인적없는 강원도 산골에 웬 대기줄?’…‘왕사남 특수’에 성삼문·한명회도 소환」, 〈문화일보〉, 3월 26일자. (<https://www.munhwa.com/>)
- 「‘왕사남’ 열풍, 천안시도 슬쩍 “한명회 묘역 있어요, 지나면서 보세요”」, 〈한겨레〉, 2026년 3월 11일자. (<https://www.hani.co.kr/>)

